

КОРЕ
ИЛЬБО

고려일보

БУДЬТЕ БЛИЖЕ К ИСТОКАМ

뿌리를 잊지 말자



Сканируйте QR-код и переходите на сайт www.koreans.kz



Сканируйте QR-код и переходите в Instagram -Коре ильбо-

42 (1840) 4 ноября 2022 года

보육

나의 승리와 미래의 목적

타자베코바 굴미라 (극동학과 수석교원)

알-파라비 명칭 카자흐국립대 극동학과는 한국학과 일본학 분야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카자흐스탄의 주도적 센터로 되었다. 과학-교육 인재들의 높은 실력은 극동학과 졸업생들에 대한 수요를 높인다. 금년은 내가



극동학과 연구원을 졸업한지 15년이 되었다. 나는 이학과 졸업생으로서 큰 긍지감을 느낀다.

나는 어릴때부터 여행을 많이 하기를 꿈꾸었기에 학교에서 영어를 열심히 배웠다. 언어를 배우는 것이 마음에 들었기에 카자흐국립대에 입학하기로 했다. 2003년에 예엔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본 학과 그란트에 입학했다. 대학에 입학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직업적 발전의 출발점으로 되었다. 나는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동방의 문화와 언어를 연구했다. 나의 앞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많이 열렸다. 나는 최우등 성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오사카 시 국제일본재단이 조직한 연수를 경과하였다. 나는 2005년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CIS나라 일어응변술 콩쿨에서 수상자리를 차지했다.

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교사의 직업이 마음에 든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카자흐국립대의 나의 정든 학과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다. 때문에 대학원에서 학업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석사원에 입학하여 최우등

성적으로 학업을 끝냈다. 석사원에서 공부한 후에 저의 생활에는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망이 생겼다. 예를 들어 2008년에 일어로 쓰는 국제에세이 콩쿨에서 승리하여 일본의 나가사키, 사포로, 동경으로 연수를 갈 수 있게 되었다. 2009년에는 오사카 시에서 외국 연구생과 석사생을 위한 연구연수를 하였다. 그 외에 석사원에서 공부할 때 일어지식을 확정하는 국제시험 (해마다 진행되는)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치르고 일어소유 제 1급 (가장 높은 급) 사르찌피케트를 받았다.

현재 저의 오랜 꿈이 실현되었다. 나는 카자흐국립대 극동학 학과에서 상급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경험 있는 엠 나탈리아 보리소브나가 지도하는 우리 집단은 화목하다. 우리 학과에서 두가지 언어 즉 한국어와 일어를 가르친다. 카자흐스탄교사들과 함께 한국과 일본에서 온 교사들도 일하고 있다. 직업에 대한 그들의 책임적 태도, 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의 마음에 든다. 우리에게는 그분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 예하면 한국학부 교사들은 해마다 각종 올림피아다, 한국어와 역사에 관한 콩쿨을 진행하며 한국문화와 연관된 명절과 행사를 조직한다. 학과 교사들의 주의깊은 배려이 의해 해마다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과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 졸업생들은 대학을 필한후에 대사관 한국 및 일본 회사, 교육기관의 좋은 일자리에 취직된다.

극동학과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나는 자기 사업의 질적 실행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낀다. 때문에 부단히 배우며 자격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트레이닝과 강습을 다닌다. 나는 금년에 또 일어지식 시험을 치르어 N1 (가장 높은 수준)서르찌피케트를 받았다. 자기의 직업적 지식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저에게 아주 중요하다.

극동학과는 나의 생활에서 여러 곳에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드문 직업을 소유했고 여러 나라에 다녀왔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우리를 가르쳤으며 우리를 믿고 계속 발전할 동기를 준 우리 교사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는 자기의 경험과 얻은 지식을 다른 젊은이들에게 전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방법론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일어강습을 조직하는 것이 나의 목적인데 이것은 언어를 쉽게, 속히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저의 이런 사업이 기타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쉽게소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함으로서 내가 사회에 이익을 가져오며 나라의 교육발전에 자기의 기여를 하고 싶다.

카자흐

지난 화요일 그룬 김재문 대표의 고려인협회와 했다. 김대표는 주년을 맞이하는 데 관심을 들이고 콘스탄틴 총리를 간단히 이 김대표와 잠깐을 얻었다.

-김대표님 오시게 된 동해 주십시오.

-예, 저는 민족주의, 수기 포로학 발전전 파라비 명칭 회의에 참가하

-김대표기

-어떤 일인지 그런 상상이 발행에서도 2010년에 만 아니라 시, 다. 특히 연해 육필원고를 친다. 그리고 >, <사과가 있어서 펴낸 책

-최근에는

-최근에는 해 쓴 동시집을 난 동시집입니다 시인의 <한 김재문 대. 학상>을 제정을 선정하여 김재문 대. 연구교수로 9